

91.12.24

“쉽게 돈버니까 윤락 그만 못뉘” 33%

도시윤락여성들의 학력과 연령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중상당수는 돈을 쉽게 벌기위해 윤락행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이같은 사실은 한국부인회(회장 박금영)가 최근 서울 釜山 大邱 木浦 東豆川 議政府 등 전국 13개 대도시의 윤락여성 4백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드러난 것이다.

이 조사에 따르면 윤락여성들의 학력은 고졸이 26%로 가장 많아 중졸이 가장 많았던(21%) 지난 89년부터 학력이 높아지는 추세.

이들은 윤락행위를 하게 된 동

매춘여성 4百명대상

한국부인회 설문조사

기에 대해 「돈을 벌어 독립하기 위해서」(41%) 또는 「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서」(19%)라고 응답해 주로 경제적인 동기도 윤락행위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.

그러나 윤락행위를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33%가 「돈을 쉽게 벌수 있어서」라고 응답, 힘든 일을 기피하는 이들의 풍조를 반영했다.

이에 따라 상당수의 윤락여성이 「어떤생활을 계속하고 싶다」(16%)거나 「잘 모른다」(58%)고 답했으며 「완전 그만두고 싶다」는 사람이 26%에 불과했다.

윤락여성도 “高學歷추세”

91.12.19 한국부인회 400여명 실태조사

윤락여성들의 연령과 학력이 높아지고 있어 윤락행위를 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.

이는 한국부인회가 19일 오후 한국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에서 가진 「윤락여성실태와 대책」세미나를 통해 발표된 내용.

서울 등 10개 도시와 평택·동두천·의정부 등 미군 기지촌 일대의 윤락여성 4백명을 대상으로한 실태조사에서 연령층은 25~29세가 33%로 가장 많았으며 40세이상도 7%나 됐다.

이는 89년 당시 조사에서 20~24세가 35%로 가장 많았던 것과 차이를 보인다. 또 학력도 89년에는 중졸 21%, 고졸 15%였던 것이 이번 조사에서는 각각 20%, 26%로 나타났다.

윤락여성들의 가출 이유는 「돈을 벌기위해」가 59%로 으뜸, 돈 버는 수단으로 윤락행위를 하는(41%) 이들이 많았다. 이들은 생

활대책이 없다는 것(40%) 못지않게 손쉬운 돈벌이(33%)란 점에서 윤락행위를 그만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윤락행위로 인한 하루 수입은 5만원 이상이 52%, 10만원 이상이라는 응답자도 25%나 됐다.

이를 대부분은 번돈을 생활비 외에 저축(43%)하고 있으나 유혹비로 쓴다는 이들도 27%나 됐다.

이들이 윤락행위를 하게 된 것은 친구의 유혹(36%)이 으뜸. 그러나 강제로 하게됐다는 응답도 16%를 차지, 89년에 비해 네배나 늘어나 인신매매로 인한 가능성을 높게 시사하고 있다.

한국부인회 襄聖心법을 상담실장은 『올바른 성도적 확립이 윤락여성문제 해결의 밑거름』이라고 주장하고 성교육과 생명운동으로 이를 바로잡아나가자고 제안했다. <洪壇姬기자>

고졸이 26%로 늘어 : 19세 25세가 33%